

홈 > 뉴스 > 기획 > 제주 근대 유산의 길을 걷다

5.16도로 건설 현장 감독 맡은 김종근 전 제주도 건설교통국장

"수악교에 천막을 치고 9개월 동안 살아"

데스크승인 2013.05.26 좌동철 기자 | roots@jejunews.com



김종근 전 제주도 건설교통국장(72)은 5·16도로의 산 증인이다. 1960년 제주시 공무원으로 출발, 도로 포장에 시작되는 1962년 제주도 시설계로 자리를 옮겨 현장 감독을 맡았다.

김 전 국장은 21살이던 1962년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수악교에 설치된 천막에서 인부들과 숙식을 함께 하며 공사를 감독했다.

그는 "성판악에서 영주교까지 미 개통 10km 구간은 삽과 곡괭이로 도로를 다지며 사람의 손으로 뚫어 놓았다"며 "지금 같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새벽부터 일을 시작해 저녁이 돼야 삽을 놓았다"고 회고했다.

당시 전남 완도에서 인부들을 많이 모집했고, 40여 명이 천막에 머물며 생활을 했다. 개통을 서두르기 위해 일당이 아닌 하루에 진척된 공사 구간에 따라 노임이 지불됐다.

그는 “보리밥과 된장, 산에서 나는 나물로 식사를 해결했는데 멸치볶음은 최고의 반찬이었다”며 “이런 걸 먹고도 당시 인부들은 지금보다 힘이 세서 무거운 돌과 흙을 손수 지고 날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 ‘이 길을 포장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 정도로 산세가 험했고, 나무가 울창했다”며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한 덕분에 다리를 놓으면서 난공사 구간이 개통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GMC 마크가 붙은 군용트럭은 유일한 장비였다. 이 트럭으로 쌀과 드럼통에 담은 식수를 수악교 천막까지 날랐다.

그런데 병역 미필자 등 ‘구약일소’ 차원에서 결성된 ‘국토건설단’이 5·16도로에 투입됐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다.

그는 “국토건설단은 어승생담 건설을 위해 1968년 1진 171명이 부산에서 제주에 처음 도착했다”며 “이들은 나중에 1100도로 공사에 동원됐지만 5·16도로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전 국장은 “한라산 제1횡단도로는 1963년 2월 6일 국도로 지정되면서 ‘5·16도로’로 명명됐다”며 “제주에서 가장 먼저 개통된 국도이자, 역사성이 있는 도로로 선대들의 땀과 희생이 지금도 이 길에 남아 있다”고 말을 맺었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 제주신보(<http://www.jeju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